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56, No. 1

OPEN ACCESS

한국목록규칙 제5판 초안의 특성과 서지기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Bibliographic Description of the KCR5 Draft

김 정 현 (Jeong-Hyen Kim)**

〈 목 차 〉

Ⅰ. 서 론
Ⅱ. KCR5의 제정배경과 경과과정
Ⅲ. KCR5의 특성과 내용분석
Ⅳ. KCR5와 관련 규칙과의 관계
Ⅴ. 결 론

요 약 : 이 연구는 KCR5의 특성과 개체별 데이터기록의 적용, KCR4와의 차이점, 그리고 관련 목록규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KCR5의 주요 특성과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록규칙의 국제적 흐름이 ISBD와 AACR2에서 FR 개념모형과 RDA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KCR5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둘째, KCR5는 전거제어를 규칙상에서 명확히 하고 모든 저작에 대해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KCR5에서는 개체간의 다양한 서지적 관계를 보다 구조화하여 기록함으로 목록의 링크 기능이 매우 효과적이다. 넷째, 인코딩을 위해 여전히 KORMARC 형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KCR5에서 유보한 개체인 개념, 대상, 사건, 장소에 관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며, RDA 2020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KCR5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할 새로운 목록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한국목록규칙, 자원기술과 접근, 영미목록규칙, 국제표준서지기술법, FR 개념모형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KCR5 draft, the application of data record by entities, the differences from KCR4, and the relationship with related cataloging rules.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future tasks of KCR5 are as follows. First, it is significant that KCR5 was revised in the same direction as the flow of international cataloging rules changed from ISBD and AACR2 to the FR concept model and RDA. Second, authority control was clarified in the rules, and authorized access points were created for all works. Third, KCR5 records various bibliographic relationships between entities in a structured manner, so the link function of the catalog is very effective. Fourth, since the KORMARC format must still be used for encoding, a review of this is necessary. Fifth, additional work is needed on reserved entities such as concept, object, event, and place, and it is also necessary to respond to RDA 2020. Sixth, in order to actually apply KCR5, it is urgent to develop a new cataloging system to execute it.

KEYWORDS : KCR, RDA, AACR, ISBD, FRBR

* 이 논문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jhgim@jnu.ac.kr / ISNI 0000 0004 6322 8942)

• 논문접수: 2025년 2월 28일 • 최초심사: 2025년 3월 8일 • 게재확정: 2025년 3월 8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1), 271-288, 2025. http://dx.doi.org/10.16981/kliss.56.1.202503.271

※ Copyright © 2025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Ⅰ. 서 론

오늘날의 목록법이 확립되기까지 그동안 수많은 논쟁과 시행착오가 있었다. 1961년 파리원칙(Paris Principles) 이전의 대표적인 목록이론으로 1841년 파니찌(A. Panizzi)의 대영박물관 목록규칙, 1876년 카터(C. Cutter)의 사전체목록규칙, 그리고 1953년 루베츠키(S. Lubetzky)의 목록규칙을 들 수 있다. 이들 규칙에는 1998년 IFLA의 FRBR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용자 요구'와 '저작'이라는 아이디어를 이미 함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수준에서 서지정보의 유통과 교환을 위해 파리원칙을 제정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ISBD와 AACR을 제정하고, 2009년 국제목록원칙규범을 제시하기까지 파리원칙은 각국의 목록 기반이 되어 왔다. 국제목록원칙규범은 파리원칙 시대의 이러한 목록이론을 '세계의 위대한 목록법의 전통'으로 그 계승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념모형인 FRBR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10년 제정한 RDA는 바로 FRBR의 탄생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세계를 위해 설계한 새로운 표준이다. 이는 전통적인 도서관목록이 아니라 웹 기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매체에 대한 서지기술과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한 다국적 내용의 표준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목록규칙의 국제적 흐름은 국제표준서지기술의 역할을 하여 온 ISBD가 있지만 이미 FRBR을 기반으로 하는 RDA로 진행되고 있다(김정현, 2024, 20). 한국의 도서관계에서도 일찍이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FRBR과 RDA를 반영한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작업을 시작한 이후, 드디어 한국목록규칙 제5판 초안(이하 KCR5)을 공개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2024).

이 연구는 KCR5의 제정배경과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경과과정을 살펴본 후, KCR5의 내용 구성, 주요 특성, 데이터기록의 적용, 그리고 실제적인 데이터기록의 근간이 되는 구현형의 기술에 있어 KCR4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세부 특성을 분석한다. 아울러 ISBD와 AACR2, RDA 등 KCR5와 관련 규칙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KCR5의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Ⅱ. KCR5의 제정배경과 경과과정

1. KCR5의 제정배경

KCR5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목록규칙의 국제적 흐름이 파리원칙 이후 국제목록원칙과 FRBR을 기반으로 하는 RDA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있지만, 이미 KCR4 자체의 한계점으로 인한 개정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KCR4를 제정한 이래 KCR4는 제정 당시부터 표목의 선정과 형식은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거제어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미완성의 규칙이었다(韓國圖書館協會, 2003, ix-x). 기본표목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파리원칙 이후 AACR2의 저자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기본기입방식에 익숙하던 도서관 현장에서는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후 지금까지 한국목록규칙에서 전거제어에 대한 명문화 규정을 추가하지 않아 전거제어는 개별 도서관의 관행대로 방치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자동화목록법 이전의 전통적인 수작업 시스템에서 개별 도서관이 나름대로 기본표목을 적용하며 전거파일을 작성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전거레코드를 작성하기가 훨씬 쉬운 온라인 컴퓨터 환경에서 대부분의 도서관이 전거레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정현, 2013, 131-133). 물론 이것은 제4판을 제정한 이후 후속 규칙으로 전거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수작업 시스템에서 작성하던 전거파일을 개별 도서관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2013년 개정 작업을 시작할 당시 목록 전문가의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이 국제목록원칙규범, FRBR, 그리고 RDA와 같은 목록규칙의 국제적 흐름을 수용하고, 접근점에 대한 내용추가, 전거제어를 위한 세부규칙 마련, 자원유형별이 아닌 기술요소별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김정현, 2013, 137-139).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이 자연스럽게 한곳으로 모아졌으며, 지금과 같은 구조와 내용의 KCR5를 완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KCR5의 경과과정

KCR5의 초안을 발표하기까지 그동안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회의를 거듭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해마다 개최되는 전국도서관대회의 세미나를 통해 주요한 쟁점에 대한 도서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이러한 세미나와 주요 자문 내용을 시계열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1)]

2013년 9월 한국목록규칙 개정에 관한 도서관계 의견수렴 (설문조사)
2013년 10월 한국목록규칙 개정 방향 발표 (제50회 전국도서관대회)
2014년 10월 한국목록규칙 개정판의 구성에 대한 제안 발표 (제51회 전국도서관대회)
2015년 10월 저작과 표현형의 전거형 및 이형 접근점 기술 (제52회 전국도서관대회)
2016년 10월 개인명과 단체명의 전거형 및 이형 접근점 기술 (제53회 전국도서관대회)
2017년 10월 AACR2와 RDA의 접근점 규정에 관한 연구 (제54회 전국도서관대회)
2018년 10월 저작: 종교저작, 음악저작 관련 (제55회 전국도서관대회)
2019년 10월 판사항, 발행사항 관련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2023년 10월 한국목록규칙 제5판의 개정 방향과 주요 내용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
2024년 10월 한국목록규칙 제5판의 주요 내용과 적용 (제61회 전국도서관대회)

1)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도서관협회의 자료실과 목록위원회의 회의록에 나타나 있음.

2015년 12월 RDA 전문 번역『자원의 기술과 접근』/ 김정현 역 (국립중앙도서관, 2015)
2016년 12월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표준화위원회 의견수렴: 전거데이터 우선표목 관련
2017년 2월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의견수렴: 한자문화권의 표제, 개인명, 단체명 관련
2024년 4월 8일 - 6월 28일 한국목록규칙 제5판 초안 도서관계 의견수렴 (도서관협회 홈페이지)

Ⅲ. KCR5의 특성과 내용분석

1. 내용 구성

제5판은 전체적으로 자원의 내용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제4판에서와 같이 자원의 유형별로 장을 구성하지 않고, 자원의 내용적 측면에서 저작과 표현형, 물리적 측면에서 구현형과 개별자료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저작과 표현형에 대한 새로운 속성을 다수 추가함으로써 내용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김정현, 2024, 20-22).

목차 구성(0.5)은 〈표 1〉과 같이 외형적으로 제4판과 전개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제4판은 기술

〈표 1〉 한국목록규칙 제4판과 제5판 초안의 목차 비교

KCR4	KCR5
제0장 총칙	**제0부 총설**
제1장 기술총칙 제2장 단행본 제3장 지도자료 제4장 고서와 고문서 제5장 악보 … 제11장 연속간행물 제12장 점자자료	**제1부 서지기술** **1.0 총칙** 1.1 구현형 1.1.0 총칙 1.1.1 표제 1.1.2 책임표시 1.1.3 판사항 1.1.4 연속간행물의 권호사항 … 1.1.10 주기사항 1.1.11 식별기호 1.1.12 입수 및 접근정보
	1.2 개별자료 1.3 저작 1.4 표현형 1.5 개인 1.6 가계 1.7 단체
	제2부 접근점 2.0 총칙 2.1 저작의 접근점 2.2 표현형의 접근점 2.3 개인의 접근점 2.4 가계의 접근점 2.5 단체의 접근점
	제3부 관계 3.0 총칙 3.1 자원에 관한 기본적 관계 3.2 자원과 개인, 가계, 단체와의 관계 3.3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간의 관계 3.4 개인, 가계, 단체간의 관계

총칙 아래 자료유형별로 단행본부터 점자자료에 이르기까지 장을 세분하여 자원의 속성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5판은 ISBD 통합판에서와 같이 자원별 구분이 아니라 구현형이라는 개체 아래에 서지요소별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표 1〉에서와 같이 제4판의 전체 내용이 제5판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구현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5판의 구현형 다음에 설정되어 있는 개별자료, 저작, 표현형, 개인, 가계, 단체, 접근점, 관계는 모두 새로이 신설한 부분이다.

가. 제1부 서지기술

〈표 1〉의 KCR5 목차에서와 같이 제1부에서는 서지데이터로서의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개인, 가계, 단체 등 각 개체의 요소를 기록하며, 개체마다 탐색과 식별에 필요한 서지요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0). 여기서 서지데이터의 근간은 구현형이며, 표제, 책임표시, 판사항, 연속간행물 권호사항, 발행사항, 수록매체사항, 총서사항, 간행방식, 간행빈도, 주기사항, 식별기호, 입수 및 접근정보 등의 요소로 구분하고, 각 요소 아래 자원의 속성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서지요소에 대한 규정은 제4판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술규칙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새로 신설한 저작, 표현형, 개인, 가계, 단체에 관한 서지기술은 대부분 전거제어를 위해 사용하고, 개별자료는 기술의 대상이 되는 각 개체의 식별에 사용한다.

나. 제2부 접근점

제2부에서는 서지데이터 및 전거데이터의 검색을 위한 접근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접근점은 크게 제어형 접근점과 비제어형 접근점으로 구분된다(2.0). 제어형 접근점은 전거제어의 대상이며, 일련의 자원에 관한 데이터의 집중을 위해 필요한 일관성을 제공한다. 제어형 접근점에는 전거형접근점과 이형접근점이 있다. 전거형접근점은 저작, 표현형, 개인, 가계, 단체의 우선명 또는 우선표제를 기반으로 작성한다. 이형접근점은 이러한 각 개체의 우선명(또는 우선표제) 또는 이형명(또는 이형표제)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또한 접근에 중요한 경우, 기타 형태에도 작성할 수가 있다.

다. 제3부 관계

제3부에서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개인, 가계, 단체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서지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3.0). 서지적 관계 즉, 관련 개체를 기록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자원의 탐색, 식별, 선택에 도움을 주고, 각종 개체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관계의 속성은 〈표 1〉에서와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원에 관한 기본적 관계를 제외하고 식별기호나 전거형접근점 작성, 구조화기술을 할 때 관계표시어를 사용한다. 관계표시어는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주요 특성

가. FR 개념모형에 기반한 규칙 구조

KCR5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FR 개념모형을 구조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0.4). 따라서 규칙의 구성과 용어는 KCR4와 크게 다르다. KCR4는 자원의 종류별로 장을 구성하고 있지만 KCR5는 제0부의 총설 이후, 제1부가 서지기술로 되어 있고, FRBR에 규정한 개체별로 속성 기록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개인, 가계, 단체별로 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다만 개념, 대상, 사건, 장소에 관한 서지기술은 RDA 등의 규칙을 고려하여 유보하였다(0.5). 제2부의 접근점은 전통적인 표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KCR4에서는 규정이 없어 KCR5에서 신설한 부분이다. 접근점은 제1부의 서지기술에서 각 개체의 속성으로 기록한 요소로 구성하며, 접근점의 작성 규칙도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 접근점을 작성하는 방법은 개체에 따라 다르므로 개체마다 장을 달리하고 있다. 제3부는 관계이며, 관계의 종류별로 장을 구성하고 있다.

나. 전거제어의 중시

KCR5의 서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전거제어를 규칙상에 명확히 하고 있다(1.0.2). 특히 RDA와 마찬가지로 모든 구현형과 저작을 연결하는 관계 기록을 핵심요소로 하고 있으며(3.1.0.1), 모든 저작의 전거제어를 요구하고 있다. 저작(필요에 따라 표현형)의 전거제어를 함으로써 FRBR에 근거한 구조적인 자원의 탐색과·제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전거데이터의 집합인 전거파일을 유지 관리하고, 서지데이터의 표목으로 전거파일에서 정한 통일표목을 사용함으로써 표목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거제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거파일은 목록에서 표목으로 선정한 형식을 기입하여 자모순으로 배열한 것이며, 여기에는 저자명, 단체명, 주제명 또는 무저자명고전의 통일표제 등 형식 이외에 쓰이는 형식과 선정한 형식의 출처도 기록한다(張一世, 1968, 272). AACR2나 KCR2에서도 전거제어를 위해서는 통일표목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각종 개체의 표목 선정 및 작성 방법, 표목에 관련된 참조, 표목의 출처 기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KCR4에서도 전거제어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규칙을 지금까지 마련하지 않아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국내에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일부 대학도서관 등에서 전거제어를 위해 개별적으로 전거파일을 작성하여 오고 있지만, KERIS의 대학도서관종합목록에 참가하는 도서관들이 전거데이터의 작성 및 서지데이터와 전거데이터 간의 링크 형성이 필수가 아니었다. 그리고 개별 도서관의 OPAC이 전거파일을 활용한 검색 기능을 반드시 제공하고 있지 않아 사서나 이용자 대부분이 전거제어에 무관심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KCR5에서 통일표목은 전거형접근점으로, 저작자와 주제는 해당 개체로, 참조는 이형접근점으

로 용어와 개념이 바뀌었지만, 그 역할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KCR2에서는 무저자명고전, 종교경전 등 일부 저작에 대해서만 서명 통일표목 즉, 통일표제를 적용하여 전거파일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張一世, 1968, 135), KCR5에서는 서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저작에 대해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전거제어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특히 KCR5는 관계 기록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전거제어는 기존의 전거파일이 수행한 기능 외에도 전거형접근점을 통해 관련 개체를 탐색할 수 있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다. 관계 기록의 중시

FR 개념모형을 기반으로 한 결과, KCR5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체간의 관계 기록을 중요시하고 있다(0.4). KCR4에는 '개체'나 '관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개체 간의 관계 내용을 전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주기사항에는 다양한 관계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둘 이상의 연속간행물을 하나로 '합병'한 경우 합병전 간행물과 합병후 간행물, 번역서의 경우 원저작의 표제와 번역표제 등에 존재하는 서지적 관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KCR4에서는 기록된 관계 유형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주기사항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더라도 링크 기능을 거의 제공하지 않아 탐색의 효과는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KCR5에서도 저작간의 관계 기록에 있어 비구조화기술(3.3.0.2)은 링크 기능을 제공하기 어려움으로 가능하면 기계가독성의 측면에서 전거형접근점이나 구조화기술, 식별기호 방법으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KCR5에서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관계를 기록하고 탐색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관계표시어를 사용하면 관계 유형도 명시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전거제어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체의 기술 중에서 필요한 관계 기록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관계 기록을 통해 이용자가 자원과 개체를 탐색하는 데 유용하고, 정보서비스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록의 링크 기능을 제공하기가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3. 세부 특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CR4의 전체 규정이 KCR5의 구현형에 해당한다. 실제적으로 서지기술의 근간이 되는 구현형의 기술에 있어 KCR4와 차이점을 중심으로 세부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요소와 하위요소, 핵심요소와 임의요소

서지기술의 속성을 요소와 하위요소, 핵심요소와 임의요소로 구분하였다(0.6). 개체의 속성 및 개체 간의 관계를 요소와 하위요소의 2계층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체 230여개의 요소가 있다. 이 가운데 핵심요소는 66개이며, 이는 자원의 탐색과 식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여기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핵심요소인 것도 포함한다.

나. 요소의 의미적 측면만 규정

KCR4에서는 각 서지사항을 ISBD 구분기호법을 적용하여 '발행지 : 발행처, 발행년'과 같이 기록하였지만, KCR5에서는 요소나 요소군의 기록 순서, 데이터의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와 같은 인코딩 방식,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와 같은 출력 형식 등은 원칙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0.8). 이와 같이 구문적 측면을 제외하고 서지요소의 정의와 값에 해당하는 의미적 측면만 규정한 것은 메타데이터 관련의 표준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요소의 기록방법

실제적인 요소의 기록방법은 ① 정보원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기록, ② 제어형 방식으로 기록, ③ 규칙 내에서 제시한 용어 가운데 선택하여 기록, ④ 계수 및 계측값을 기록, ⑤ 기타 어구나 문장 등의 기록으로 구분하였다(1.0.8.1). 구현형의 각 요소는 원칙적으로 정보원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제어형 방식은 저작, 표현형, 개인, 가계, 단체 등과 관련한 표제와 이름을 기록하는 데 적용한다.

라. 새로운 요소 설정

KCR4에서는 관계 유형의 기록이 매우 제한적이며, 주기사항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더라도 탐색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KCR5에서는 주기사항에 기록하던 많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새로운 요소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서지적 관계 유형에 따라 관계(3.0)에서 개체간의 관계 속성을 구조화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지적 내력에 관한 주기 → 관련 저작(3.3.1), 관련 표현형(3.3.2), 관련 구현형(3.3.3)
- 개작, 번안 등에 관한 주기 → 관련 저작(3.3.1)
- 개정, 번역 등에 관한 주기 → 관련 표현형(3.3.2)
- 영인본이나 복제본의 원본에 관한 주기 → 관련 구현형(3.3.3)
- 상이한 형태의 자료에 관한 주기 → 관련 구현형(3.3.3)
- 합철물에 관한 주기 → 관련 개별자료(3.3.4)
- 내용주기 → 관련 구현형(3.3.3) 또는 관련 저작(3.3.1)
- 부록에 관한 주기 → 관련 저작(3.3.1)
- 자료의 이용이나 접근에 관한 주기 → 접근제한(1.1.12.3), 이용제한(1.1.12.4)

마. 개체별로 속성을 구분하여 기록

개체별 구분이 없이 KCR4에서는 구현형의 기술에 서지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이

개체별로 속성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 자료의 성격이나 범위에 관한 주기 → (저작) 저작의 내용(1.3.8)
◦ 자료의 이용 계층이나 지적 수준에 관한 주기 → (저작) 이용대상자(1.3.8.4)
◦ 학위논문주기 → (저작) 학위논문정보(1.3.8.6)
◦ 지도자원의 좌표표시 → (저작) 지도의 좌표 (1.3.8.3)
◦ 자료의 예술적 표현 양식에 관한 주기 → (표현형) 표현형의 내용(1.4.6)
◦ 본문이나 초록의 언어에 관한 주기 → (표현형) 표현형의 언어(1.4.3)
◦ 형태사항: 삽화 정보 → (표현형) 삽화 (1.4.6.6)
◦ 형태사항: 구성요소의 재생시간 → (표현형) 재생시간(1.4.6.13)
◦ 지도자원의 축척 및 도법표시 → (표현형) 축척 (1.4.6.14), 도법(1.4.6.15)
◦ 악보에서 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 → (표현형) 악보 형식 (1.4.6.11)
◦ 수상에 관한 주기 → (표현형) 수상(1.4.6.17)
◦ 소장에 관한 주기 → (개별자료) 개별자료에 관한 주기(1.2.4)

바. 임의규정

KCR5에서는 KCR4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나 선택규정이 없지만, 핵심요소로 명시하지 않은 대부분의 요소는 임의적인 요소이다(0.6). 이외에도 일부 규정에 따라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표현으로 임의나 선택규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 데이터 작성기관이 우선하는 언어나 문자로 기록한다(0.9)
◦ 데이터 작성기관에 따라 ~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다(1.1.2.0.2의 2))
◦ ~를 기록할 수 있다(1.1.5.0.2)
◦ 데이터 작성기관에서 우선하는 ~를 선정하거나 임의로 ~ 고안할 수 있다(1.3.1.1.2)
◦ ~을 참조하여 기록하거나 데이터 작성기관에서 임의표제를 만들어(1.1.1.1.2의 6))

사. 기타

◦ 구현형을 기술하는 방법을 종합기술, 분석기술, 계층기술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술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게 한다.(1.0.5).
◦ 간행방식은 구현형을 단권 또는 여러 권으로 발행하는지와 갱신의 방식, 종결의 의도에 따라 범주화하여 단권자원, 다권 단행자원, 연속간행물, 통합자원으로 구분한다(1.0.4).
◦ 자원의 유형별 구분이 KCR4에서는 본표제 다음에 '자료유형'과 형태사항의 '특정자료종별'에 기록하였으나, KCR5에서는 구현형의 매체유형(1.1.6.1), 수록매체유형(1.1.6.2), 수량의 단위(1.1.6.3), 표현형의 내용유형(1.4.1)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 표제 정보원에서 본표제에 종속되어 활자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표시된 관제의 경우 KCR4에서는 원괄호로 묶어 기록하지만, KCR5에서는 원괄호를 하지 않고 관제를 포함하여 본표제로 기록한다(1.1.1.1.2).
◦ 연속간행물이나 통합자원의 경우, 축약형과 완전형이 함께 있으면 KCR4의 경우 활자 크기나 기재 순서에 따라 본표제를 기록하였지만, KCR5에서는 이와 관계없이 완전형을 본표제로 기록한다(1.1.1.1.2).
◦ 별도의 판표시 없이 본표제, 표제관련정보, 책임표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판표시를 이들과 통합하여 기록하고, KCR4에서는 그것을 다시 판표시로 기록하였지만, KCR5에서는 그것을 다시 판표시로 기록하지 않는다(1.1.3.1.2).

4. 새로운 용어 정의

FR 개념모형 등과 관련하여 KCR5에서 새로이 추가한 주요 용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개체(entity): 서지데이터의 이용자들이 관심을 지닌 주된 대상을 표현한 것. 각 개체에는 필요한 속성을 설정하고, 다른 개체 간에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음
◦ 속성(attribute): 개체의 탐색, 식별 등에 필요한 서지데이터를 기록한 것으로 관계 기록과 함께 개체에 관한 기술을 구성함
◦ 관계(relationship): 자원, 개인, 가계, 단체, 주제 등의 개체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연결 즉, 관련성. 서지데이터에 반영된 관계는 탐색한 개체와 관련된 다른 개체 간을 연결함으로써 이용자를 지원하는 부차적인 정보를 제공함
◦ 요소(element): 개체의 속성 및 개체 간의 관계를 기록하기 위한 서지데이터의 구성단위이며, 요소의 구성성분이나 세분 종류가 될 수 있는 하위요소를 가질 수 있음
◦ 저작(work): 개별적인 지적, 예술적 창작의 결과물 즉, 지적, 예술적 내용을 나타낸 개체
◦ 표현형(expression): 저작의 내용을 문자에 의한 표기, 음성, 이미지 등의 형식,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개체
◦ 구현형(manifestation): 저작의 표현형을 도서나 CD와 같이 물리적으로 구체화한 개체
◦ 개별자료(item): 저작의 표현형을 구체화한 구현형의 한 예시를 나타내는 개체
◦ 매체유형(media type): 자원의 내용을 이용 즉, 감상, 재생, 작동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한 매개 장치의 유형.
◦ 수록매체유형(carrier type): 매체유형과 결합하여 저장매체의 형식과 수록매체의 보관용기를 나타내는 유형
◦ 내용유형(content type): 자원의 내용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형식과 내용을

지각하는 인간의 감각을 반영하는 범주

◦ 전거형접근점(authorized access point): 개체의 우선명이나 우선표제를 기초로 작성하며, 다른 개체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제어형접근점. 개체를 탐색, 식별하거나 관련된 다른 개체를 탐색하는 수단이 됨

◦ 이형접근점(variant access point): 개체의 우선명이나 우선표제, 이형명이나 이형표제를 기초로 작성하며, 전거형접근점과는 다른 형태의 개체를 식별하는 수단이 되는 제어형접근점임

◦ 우선명(preferred name): 개인이나 가계, 단체를 식별하기 위해 선정한 이름이나 이름 형식. 이들 개체의 전거형접근점을 위한 근거가 됨

◦ 이형명(variant name): 개인, 가계, 단체의 우선명으로 선정하지 않은 이름, 또는 우선명으로 선정한 이름의 다른 형태

5. 데이터기록의 적용

자원이 입수되면 KCR4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원유형이 어떤 것인지 판단한 후, 기술총칙과 해당 자원유형의 규칙을 참조하여 서지기술을 한다. 이와는 달리 KCR5에서 데이터기록의 과정을 분석하면 크게 ① 개체의 속성 기록, ② 개체간의 관계 기록, ③ 개체의 접근점 작성이라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자원의 성격, 데이터 작성자의 취향에 따라 구분이 좀 다를 수도 있다. 실제 예시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록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2〉의 기술대상 예시는 원작에 대한 번역서와 이를 디지털화한 전자책에 대한 서지데이터이다.

〈표 2〉 기술대상 예시

▫ 원작: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 by Marc Twain
▫ 번역서: 허클베리핀의 모험 / 마크 트웨인 지음 ; 김욱동 옮김 (민음사, 1998)
▫ 전자책: 허클베리핀의 모험 / 마크 트웨인 지음 ; 김욱동 옮김 (민음사, 2012)

가. 개체의 속성 기록

구현형, 저작, 표현형, 개별자료, 개인, 가계, 단체별로 해당 개체의 속성을 기록하는 단계이다. KCR5에서 서지데이터 작성의 근간은 구현형이다(1.0.3). 위의 예시에서 구현형은 번역서와 이를 다시 디지털화한 전자책이다. 이를 KCR5의 규정에 따라 먼저 구현형의 속성 기록을 하면 〈표 3〉, 〈표 4〉와 같다. 번역 작품의 원작에 대한 저작의 속성을 기록하면 〈표 5〉와 같다. 이어서 김욱동이 한국어로 표현한 표현형의 속성을 기록하면 〈표 6〉과 같다. 여기서 처음 번역하여 종이책으로 발행하였거나 디지털화하여 전자책으로 발행하였거나 동일한 번역 내용이므로 표현형은 동일한

것이다. 그다음 개인의 속성을 기록한 것은 〈표 7〉, 〈표 8〉과 같다. 〈표 7〉은 창작자인 'Marc Twain', 〈표 8〉은 번역자 '김욱동'에 대한 속성 기록이다.

이와 같이 〈표 3〉과 〈표 4〉에 기록한 속성 요소의 대부분은 기존의 목록작업에서 서지데이터 중 '기술' 부분에 해당하며, '표목' 부분은 〈표 5〉~〈표 8〉에 나타나 있다. 〈표 5〉와 〈표 6〉은 저작과 표현형 데이터의 예시이며, 일부 데이터 요소는 이전에 서지데이터로 기록하였지만, KCR5에서는 대부분이 전거데이터로 취급하고 있다. 물론 〈표 7〉과 〈표 8〉에 기록한 대부분의 요소는 이전의 목록작업에서도 전거데이터로 취급하였다.

나. 개체간의 관계 기록

먼저 자원에 관한 기본적 관계(3.1) 즉,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를 서로 연결하는 관계를 기록한다. 전거형접근점으로 저작과 표현형 간의 관계를 기록하는 경우, 저작과 표현형에 대한 전거형접근점을 여기서 작성하게 된다. 〈표 3〉과 〈표 4〉에서는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 같은 언어로 표현한 번역서라는 것을 '구현형에서 표현형으로의 관계'로 기록하였다.

또한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간의 관계(3.3)를 기록한다. 종이책인 〈표 3〉을 대상으로 디지털화하여 전자책을 구현하는 것이 〈표 4〉이며, 이들의 서지적 관계를 〈표 3〉과 〈표 4〉에 서로 '관련 구현형'으로 기록하였다. 이때 구체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표시어 '디지털화 (구현형)'과 '디지털 대상 (구현형)'도 함께 기록한다.

자원과 개인, 가계, 단체와의 관계(3.2)를 기록한다. 〈표 5〉에서 저작의 창작자를 전거형접근점으로 기록하였다. 이때 구체적인 역할을 나타내는 관계표시어 '저자'도 함께 기록한다. 〈표 6〉에서는 표현형의 기여자를 전거형접근점으로 기록하였다. 이때 구체적인 역할을 나타내는 관계표시어 '번역자'도 함께 기록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계 기록을 통해서 '허클베리핀의 모험'에 관한 기록 데이터인 〈표 3〉~〈표 8〉은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관련 자원의 식별이나 탐색에 매우 유용하다.

다. 개체의 접근점 작성

각 개체에 대한 전거형접근점으로 기록하는 경우, 이미 해당 개체의 전거형접근점이 작성되어 있으면 이를 이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접근점의 규칙에 따라 각 개체에 대한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한다. 접근점은 개체의 속성 요소나 다른 개체의 접근점을 조합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체의 속성 요소를 먼저 기록하고, 그것을 사용해 각 개체의 접근점을 작성한다.

〈표 5〉에는 저작, 〈표 6〉에는 표현형, 〈표 7〉에는 창작자, 〈표 8〉에는 번역자의 전거형접근점을 각각 작성하고 있다. 여기서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은 창작자의 전거형접근점과 저작의 우선표제를 결합하여 작성한 것이고, 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은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에 표현형 요소를 추가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3〉 구현형 데이터: 번역서

개체	요소	하위요소	서지데이터
구현형 (속성)	표제	본표제	허클베리핀의 모험
	책임표시	본표제관련 책임표시	마크 트웨인 지음
		본표제관련 책임표시	김욱동 옮김
	발행사항	발행지	서울
		발행처	민음사
		발행일	1998
	수록매체사항	매체유형	중개장치 없는 매체
		수록매체유형	도서
		수량	614쪽
		크기	23 cm
	간행방식		단권자원
	구현형의 식별기호		ISBN 9788937460067
	입수조건		₩10000
구현형 (관계)	구현형에서 표현형으로의 관계		Twain, Mark, 1835-1910.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한국어 (김욱동: 1998)
	관련 구현형		디지털화 (구현형): 허클베리핀의 모험. -- 서울 : 민음사, 2012

〈표 4〉 구현형 데이터: 전자책 (번역서의 디지털화)

개체	요소	하위요소	서지데이터
구현형 (속성)	표제	본표제	허클베리핀의 모험
	책임표시	본표제관련 책임표시	마크 트웨인 지음
		본표제관련 책임표시	김욱동 옮김
	발행사항	발행지	서울
		발행처	민음사
		발행일	2012
	수록매체사항	매체유형	컴퓨터
		수록매체유형	온라인자원
		수량	온라인자원 1개 (614쪽)
		파일유형	텍스트 파일
		인코딩 형식	EPUB
		파일크기	66.72 MB
	간행방식		단권자원
	구현형의 식별기호		ISBN 9788937493065
	입수조건		₩8190
구현형 (관계)	구현형에서 표현형으로의 관계		Twain, Mark, 1835-1910.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한국어 (김욱동: 1998)
	관련 구현형		디지털화 대상 (구현형): 허클베리핀의 모험. -- 서울 : 민음사, 1998

〈표 5〉 저작 데이터: 원작

개체	요소	하위요소	서지데이터
저작 (속성)	저작의 표제	저작의 우선표제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저자의 이형표제	Huckleberry Finn
		저작의 이형표제	Mark Twain's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저작의 이형표제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Tom Sawyer's comrade)
		저작의 이형표제	허클베리핀의 모험
		저작의 이형표제	ハックルベリ・フィンの冒険
		저작의 이형표제	哈克流浪記
	저작의 일자		1884
	저작의 식별자		VIAF ID: 178806136
저작 (관계)	창작자		저자: Twain, Mark, 1835-1910
저작의 전거형접근점			Twain, Mark, 1835-1910.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표 6〉 표현형 데이터: 한국어 번역

개체	요소	하위요소	서지데이터
표현형 (속성)	내용유형		텍스트
	표현형의 언어		한국어
표현형 (관계)	표현형에서 저작으로의 관계		Twain, Mark, 1835-1910.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기여자		번역자: 김욱동, 1948-
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			Twain, Mark, 1835-1910.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한국어 (김욱동: 1998)

〈표 7〉 개인 데이터: 창작자

개체	요소	하위요소	서지데이터
개인 (속성)	개인명	우선 개인명	Twain, Mark
		이형 개인명	트웨인, 마크
		이형 개인멸	투웬, 마커
		이형 개인명	トウェーン, マーク
		이형 개인명	Clemens, Samuel Langhorne
		이형 개인명	클레멘스, 새뮤얼랭혼
	개인과 연관된 일자	출생일자	1835
		사망일자	1910
	활동분야		영미문학
	직업		소설가
	개인의 식별기호		VIAF ID: 50566653
개인의 전거형접근점			Twain, Mark, 1835-1910

〈표 8〉 개인 데이터: 번역자

개체	요소	하위요소	서지데이터
개인 (속성)	개인명	우선 개인명	김욱동
		이형 개인명	金旭東
		이형 개인명	Kim, Wookdong
	개인과 연관된 일자	출생일자	1948
		사망일자	
	소속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활동분야		영미문학
	직업		교수
	개인의 식별기호		ISNI 0000 0000 3988 5329
개인의 전거형접근점			김욱동, 1948-

Ⅳ. KCR5와 관련 규칙과의 관계

KCR5는 FRBR 등의 개념모형과 ISBD, AACR2는 물론, RDA의 체제와 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생성한 데이터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유통할 수 있고, 또한 국내 목록의 연속성도 고려하여 한국목록규칙의 규정이나 용어도 가능하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0.3).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1. ISBD와 AACR2

ISBD와 AACR2는 기본적으로 서지기술의 일관성을 위해 기술요소와 함께 이들의 기록 순서, 요소간의 구두점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KCR5에서는 요소가 정의되어 있지만 요소의 기록 순서와 구두점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각 규정의 실제 예시에서는 ISBD와 AACR2에서 적용하고 있는 요소의 기록 순서와 구두점, 특히 AACR2의 접근점에 대한 요소의 순서나 구두점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기록한 데이터를 ISBD나 AACR2의 구문으로 제시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아니면 목록의 구문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다.

ISBD와 AACR2에서는 저작이나 표현형, 구현형 같은 개체를 구분하지 않고 서지데이터를 하나의 레코드에 기록하고 있지만 KCR5에서는 개체별로 요소를 기록하고 있어, ISBD와 AACR2의 구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 또한 KCR5에는 사실상 구문 자체가 없으므로 기록한 데이터, 특히 전거형접근점이나 관계 등을 이용자에게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좋은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2. RDA

RDA는 AACR2와 완전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상당 부분 이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RDA는 구현형을 서지데이터의 근간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의 전거형접근점을 창작자의 우선명과 우선표제를 결합하여 작성한다(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10, 6.27). 이는 AACR2의 목록 관행과 기본표목 규정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의 도서관계에서는 그동안 기본표목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나 KCR5에서는 RDA의 전거형접근점 방식을 수용하였다. 즉, KCR5는 국제적인 호환성을 위해 RDA의 체제와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 개정 작업을 시작할 당시 목록규칙의 국제적 흐름을 따른 것이다. 물론 세부 내용은 한국목록의 전통을 반영하여 상당 부분 독자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RDA에서 제3집단의 개체인 개념, 대상, 사건을 유보하고 있지만, '장소'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규정되어 있었다(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10, 12.0-16.0). KCR5는 RDA와의 호환성을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RDA는 2010년 제정된 이후 2017년까지 매년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으며, IFLA의 LRM(Library Reference Model)을 반영하여 2020년에 전면 개정하였다. RDA 2020은 LRM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체의 범주, 요소의 속성과 관계 등에 있어 RDA 2017에 비해 상당히 다른 구조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이미화, 2023, 51-55). KCR5는 최종적으로 RDA 2017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면 개정된 RDA를 분석하여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KCR5의 제정배경과 그동안의 경과과정을 살펴본 후, KCR5의 특성과 개체별 데이터기록의 적용, 데이터기록에 있어 KCR4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ISBD와 AACR2, RDA 등 관련 규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KCR5의 주요 특성과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으로 볼 때 인터넷의 출현 이후를 새로운 목록의 시대로 규정해도 좋을 만큼 최근의 도서관 환경이 큰 변혁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목록규칙의 국제적 흐름도 ISBD를 기본으로 하는 AACR2에서 FR 개념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RDA로 변화함에 따라 KCR5를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둘째, KCR4가 단순히 구현형의 서지기술에 한정하고 있었지만, KCR5는 전거제어를 규칙상에서 명확히 하고 모든 저작에 대해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원의 탐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KCR4에는 '개체'나 '관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KCR5에서는 개체의 속성과는 별도로 개체간의 다양한 서지적 관계를 보다 구조화하여 기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목록의 링크 기능을 매우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FR 개념모형을 기반으로 규칙을 구조화하고, RDA와의 호환성을 가짐으로써 무엇보다 데이터의 기계가독성을 담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회도서관에서 MARC을 대체할 서지 프레임워크로 BIBFRAME을 개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인코딩을 위해 KORMARC 형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

다섯째, KCR5에서 유보한 제3집단의 개체인 개념, 대상, 사건, 장소에 관한 규정도 RDA에서 간행되는 대로 추가 작업이 필요하며, 2020년에 전면 개정한 RDA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KCR5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할 새로운 목록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때까지는 전거파일과 같이 전통적인 규칙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보다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목록 체제의 전환에 대비하고 제5판의 적용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정현 (2013).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123-143. https://doi-org.libproxy.jnu.ac.kr/10.16981/kliss.44.4.201312.123

김정현 (2024). 한국목록규칙 제5판의 개정 방향과 핵심 내용. 도서관문화, 65(3), 20-23.

이미화 (2023). RDA 2020을 적용한 구현형의 목록기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3), 49-70. https://doi.org/10.4275/KSLIS.2023.57.3.049

張一世 (1968). 韓國目錄規則解說.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圖書館協會 (2003). 韓國目錄規則 (第4版).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한국도서관협회 (2024). 한국목록규칙 (제5판 초안). 출처: https://www.kla.kr/kla/news01/2013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10). RDA :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ang, Il-Se (1968). Explanation of Korean Cataloguing Rule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Kim, Jeong-Hyen (2013). A study on the direction of revision in Korean cataloguing rul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123-143. https://doi-org.libproxy.jnu.ac.kr/10.16981/kliss.44.4.201312.123

Kim, Jeong-Hyen (2024). Revisions and key contents of KCR5. Library Culture: KLA Bulletin, 65(3), 20-23.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Korean Cataloguing Rules (4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24). Korean Cataloguing Rules (5th ed. draft). Available: https://www.kla.kr/kla/news01/2013

Lee, Mihwa (2023). A study on methods of describing manifestation applying RDA 202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3), 49-70. https://doi.org/10.4275/KSLIS.2023.57.3.049